

향기로 은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준식(김정연B) 김한나 김형국(이오순) 박진제(송영숙) 박복래 박순자(이동수) 박은숙(정양학) 배세영(이경순)
석형기(이희순B) 송미선 송부현(김영진) 오귀숙 유은자 윤병호(양영옥) 이근자 이미자 이상화 이영순 이월숙
전순혜 조규래 주영덕(이경자) 지상건(이희현) 최상길(이미향) 최영규(김미영) 황영옥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경업(손정아) 김지한(유소정) 박복례 박복순(김태준) 박부웅(최귀남) 박성대 유은자 윤정호(유옥자)
이경순(배세영) 이경자(주경덕) 이근자 이영순 이옥남 이월숙 이향교 이희순B(석형기) 추재호 황영옥
에스터여전도회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래 김경연(손정아) 김기택(배수자) 김병율(이영숙) 김영애 김정연B(강준식) 김정자 김준화 김현욱 박래지(송영숙) 박광업 박복래 박부흥(최귀남) 박순자(이동숙) 박희성 배세영(이경순) 백성원(안지영) 서형기(이희선) 서미영(박복식) 염영훈(전세력) 유은자 윤예원 윤정자(최성현) 이경자(주경덕) 이미자 이월숙 이한철(박희영) 장성자 전순봉 정대성 하세련 한광순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준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박복순 백경자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희 이소은 이송에 이아른 이옥남 이진우 정승현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무 명

 월정현금

주간 성경연구

33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창세기 7장 13절 ~ 24절		
월요일	창세기 8장 1절 ~ 12절	목요일	창세기 9장 18절 ~ 29절
화요일	창세기 8장 13절 ~ 22절	금요일	창세기 10장 1절 ~ 32절
수요일	창세기 9장 1절 ~ 17절	토요일	창세기 11장 1절 ~ 9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김선희	
찬 양 대	지 위 자	할 켈 시 : 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에 덴 : 최원지 엔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글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김정아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신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선 교 사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흥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움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애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합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08. 07.

위로하는 일의 어려움

설교: 이진우 목사

난 속에 있는 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음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하여 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울며 자기의 잘못을 짓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방탄 칠 일 동안 음과 함께 땅에 앉아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음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음을 괴롭게 하는 책망이요 질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재앙의 원인이 음에게 있다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피조물인 인간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을 당한 음에게 적절치 않은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이처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성도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할 때, 어떠한 자세는 지체해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성립하지 않는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옴의 친구 엘리바스는 지금 고통 속에 분노하는 옴을 향해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을 것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조언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옴에게 사실 너무도 가혹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재난을 당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백성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건달 수 없는 분노와 시기과 질투를 되느셨습니다. 사울 왕은 이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삼 전체를 걸고 행하다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우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인 선악과 행종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무고한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고통당하고 희생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 고난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잘 알아서 못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의 결과가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다윗이나 엘리야도 모두 악한 자들일 것이고, 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역시 자신의 죄의 결과로 자부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임한다면, 그것은 죄로 인한 파국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 실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진파 무서운 이유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성도는,

2.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음에게, 만약 자신이 음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일을 의탁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권은은 자신의 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절대적 위로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8절 이후에 이어진 엘리바스의 권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말속에 음을 향한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고난하는 자의 계교를 깨우쳐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은, 결국 음이 바로 그런 고난한 자라는 말입니다. 또 “미련한 자의 자식들”은 운운한 앞선 구절은 모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음에게 더욱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음을 위로하기 위해 먼 곳에서 친구들과 약속까지 하고 먼 길을 찾아와 함께 울며 슬퍼했던 엘리바스에게 음에 대한 악한 의도가 있었고 도당할 수는 없지만, 선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사라 질지 못했던 그의 말은 오히려 날카로운 칼이 되어 음의 마음을 찢고 갈기갈기 찢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혹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강당할 만한 시련만 주신다.” 고 말하며 위로를 전합니다. 물론 분명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신중히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자의 마음의 진실함을 느낄 때 더욱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상대의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며 말하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로하려는 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고난당 하는 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위로하는 자의 그 진심을 깨닫게 하소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먼저 위로 하는 자들은 고난당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먼저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오직 하나님께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의탁하여,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입장과 고통을 100퍼센트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며, 의롭고 자혜롭다고 해서 고난 속의 사랑하는 자체들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성도는 고난당한 자들 앞에서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지체의 모든 고난을 아뢰며, 은혜와 평강이 참된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간구, 고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8 - 33

2022. 08. 14.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답 임 목 사

Senior Pastor

01

Yee

V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팩 스: 2689-1230
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사회: 강 영 성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300(통406)장 다 갈 이
(Praise) 내 맘이 낙심되며

대 표 기 도 [1부]김경엽집사
(Prayer) [2부]임만순장로
[3부]강영성장로

성 경 봉 독 율기 5장 17~27절[구약P.765]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 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순례자의 노래[Joseph M. Martin]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잘못된 조언들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86(통86)장 다 갈 이
(Praise)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박 권 제 장 로
목 도	할렐루아찬양대
성 시	시편 72편 19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289(통208)장 다 갈 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기 도	김 형 국 집 사
성 경 봉 독	디모데전서 4장 6~16절(신약p.340) 사 회 자
찬 양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이 진 우 목 사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331(통375)장 다 갈 이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다 갈 이
기 도	[다음주:박희영권사] 양 영 옥 권 사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7장 15~29절(신약p.10)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템나루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중식제공 및 헌신자]
하반기 사랑으로 중식을 섬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 입구에 있는 신청란에 원하시는 날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율배식 시 꼭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여름행사 일정]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선생님, 학부모님과 기도과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청년부 8월 19일(금)~20일(토) 교회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 [피택자모임]
다음 주일(21일)에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장소: 2시/로템나루
- [장학부 모임]
다음 주일(21일) 2022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부 모임이 있습니다. 장학부 부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장소: 3부 예배 후/로템나루
- [교역자휴가]
 - ▶ 김제호 목 사 : 8월 22일(월) ~ 26일(금)
 - ▶ 이필례 전도사 : 8월 29일(월) ~ 9월 2일(금)영육간에 섬이 있어 하반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8월 행사 안내]
 - 8월 11일(목)~13일(토)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 19일(금)~20일(토) 청년부 여름수련회
 - 21일(주일) 장학부모임
 - 28일(주일) 2022년 2학기 장학금전달식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여전도회월례회 3부 예배 후/본당	* 남전도회월례회 3부 예배 후/본당 * 피택자 모임 2시/로템나루 * 장학부 모임 3부예배 후/로템나루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석애자 권사		최성현 장로 윤정자 집사	김순화 권 사	사랑1 고척10 사랑2 개봉1	루디아 여전도회
다음주	석현기 집사 이희순 권사		한나여전도회	김순옥 권 사	한나여전도회	바울 남전도회

8월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사회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1주(7일)	윤영준 장로	채만기 집사	배경철 장로	윤영준 장로	임만순 장로	김종진 집사	백남실 권사
	2주(14일)	강영성 장로	김경엽 집사	임만순 장로	강영성 장로	박권제 장로	김형국 집사	양영옥 권사
	3주(21일)	담 임 목 사	박종삼 집사	박권제 장로	김병을 장로	최성현 장로	방현식 집사	박희영 권사
	4주(28일)	최기훈 장로	최상길 집사	최성현 장로	최기훈 장로	윤영준 장로	채만기 집사	이오순 권사
	예배안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